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지표 부진에도 특정국가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등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9일(화) 미국 증시는 4월 소비심리지수 및 3월 구인건수 부진에도,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인도 혹은 특정 국가와 관세 협상 타결 임박 소식 등에 힘입어 강세(다우 +0.8%, S&P500 +0.6%, 나스닥 +0.6%).

현 시점은 관세의 충격을 확인하는 구간이기에, 지표에 따른 일간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4월 컨퍼런스 소비심리지수 쇼크(86.0pt vs 컨센 87.7pt), 3월 구인건수 둔화 (719.2만건 vs 컨센 749.0만건) 등은 관세 발 경기 침체 우려를 재차 생성시킬 법 했음.

그렇지만 주 후반에 몰린 ISM 제조업 PMI, 비농업 고용 등 메이저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기 지표 부진의 충격을 상쇄시켜준 것으로 판단.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마존의 제품 가격에 대한 관세 별도 표기 보도에 백악관측에서 정치적, 적대적인 행위라고 아마존을 비판한 사례도 주목해 볼만. 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행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계와 언론의 의견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더 나아가, 트럼프 2기가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동안 최악의 증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지지율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음. 증시 조정, 금리 상승, 달러 약세가 조합된 Sell U.S 현상이 재차 출현할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의 말 바꾸기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이렇듯 관세 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당장 이른 시점은 아니더라도) “관세 수위 감소 → 실제 지표 및 실적 불안 완화”的 경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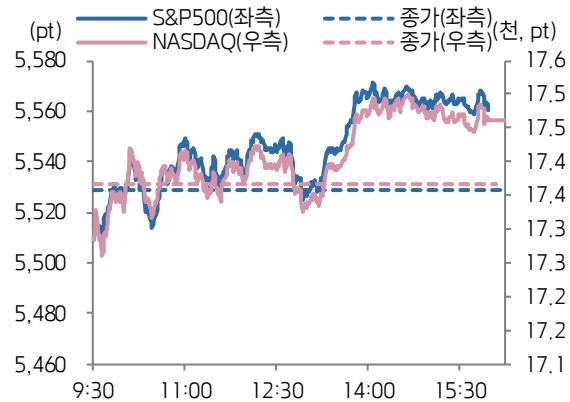
5월 중 예정된 매크로, 실적 이벤트를 치르면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소멸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 다만, 관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 및 기업 이익 침체”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하락,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일부 완화 소식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전환 속 자동차,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1.0%).

금일에는 미국의 관세 협상 진전 소식에도, 국내 휴장 기간 중 미 ISM 제조업 PMI 및 한국 수출, MS 및 메타 실적, BOJ 회의 등 대내외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이 장중 확산되면서 눈치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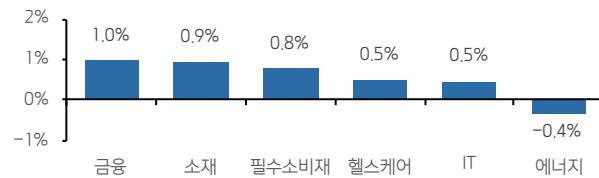
업종 측면에서는 반도체, 방산주의 주가 및 수급 변화에 주목할 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사업부문별 실적이 예정되어 있으며, 실적 그 자체보다는 컨퍼런스콜에서 메모리 업황 전망이 관건.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메인 이벤트인 가운데, 지난주 조선주 실적 발표 이후 몰렸던 시장의 수급이 방산으로 옮겨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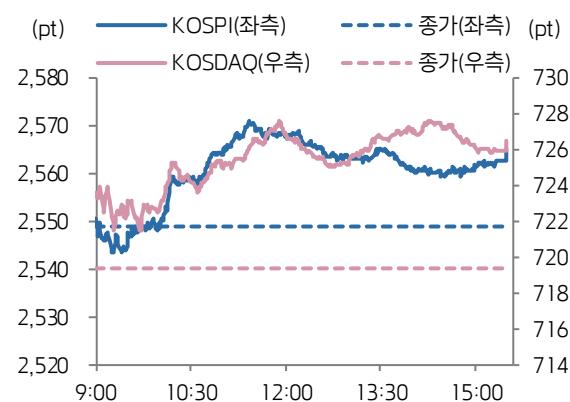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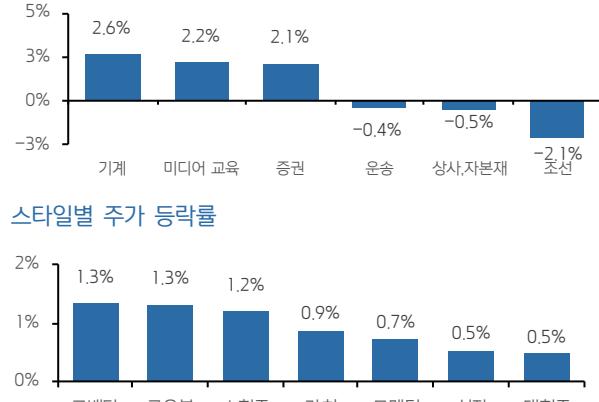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11.21	+0.51%	-15.56%	GM	46.94	-0.64%	-11.66%
마이크로소프트	394.04	+0.74%	-6.33%	일라이릴리	885.20	+0.9%	+14.86%
알파벳	160.16	-0.28%	-15.3%	월마트	96.04	+0.86%	+6.59%
메타	554.44	+0.85%	-5.22%	JP모건	244.62	+0.58%	+3.21%
아마존	187.39	-0.17%	-14.59%	엑손모빌	108.36	-0.25%	+1.64%
테슬라	24.17	-3.9%	-94.01%	셰브론	24.17	-3.9%	-83.13%
엔비디아	109.02	+0.27%	-18.81%	제너럴일렉트릭	96.04	+0.9%	+6.6%
브로드컴	191.17	-0.68%	-17.29%	캐터필러	307.40	+0.11%	-14.54%
AMD	96.06	-0.34%	-20.47%	보잉	182.00	-0.16%	+2.82%
마이크론	76.88	-2.14%	-8.53%	넥스트에라	67.25	+1.6%	-5.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65.42	+0.65%	+6.92%	USD/KRW	24.17	-3.9%	-98.36%
코스피200	24.17	-3.9%	#VALUE!	달러 지수	99.21	+0.2%	-8.55%
코스닥	726.46	+0.98%	+7.12%	EUR/USD	1.14	-0.29%	+9.98%
코스닥150	1,189.31	+1.19%	+5.27%	USD/CNH	7.27	-0.23%	-0.95%
S&P500	5,560.83	+0.58%	-5.45%	USD/JPY	142.33	+0.23%	#VALUE!
NASDAQ	17,461.32	+0.55%	-9.58%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0,527.62	+0.75%	-4.74%	국고채 3년	2,315	+0bp	-28bp
VIX	24.17	-3.9%	+39.31%	국고채 10년	2,610	+2bp	-26.1bp
러셀2000	24.17	-3.9%	#VALUE!	미국 국채 2년	3,650	-4.3bp	#VALUE!
필라. 반도체	4,196.75	-0.92%	-15.73%	미국 국채 10년	4,172	-3.7bp	-39.7bp
다우 운송	13,575.77	+0.12%	-14.59%	미국 국채 30년	4,649	-3.3bp	#VALUE!
상해증합	3,286.66	-0.05%	-1.94%	독일 국채 10년	24,170	-98bp	+2180.3bp
항셍 H	24.17	-3.9%	-99.6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0,288.38	+0.09%	+2.75%	WTI	60.42	-2.63%	-13.89%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4.25	-2.44%	-13.92%
Eurostoxx50	5,161.90	-0.17%	+5.43%	금	3,333.60	-0.42%	+23.83%
MSCI 전세계 지수	831.31	+0.5%	-1.19%	은	33.28	+0.82%	+13.79%
MSCI DM 지수	3,647.21	+0.52%	-1.64%	구리	482.30	-0.36%	+19.78%
MSCI EM 지수	1,105.99	+0.31%	+2.84%	BDI	1,403.00	+2.18%	+40.72%
MSCI 한국 ETF	56.10	+0.81%	+10.24%	옥수수	470.25	-2.69%	+0.3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25.50	-1.04%	-7.73%
비트코인	94,873.95	+0.39%	+1.24%	대두	1,052.75	-0.92%	+1.74%
이더리움	1,809.41	+1.27%	-45.93%	커피	399.80	-2.5%	+29.6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2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